

[세미나]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

- 일시: 2020년 9월 22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표: 모기룡 〈내가 선택하는 자유〉 저자

토론: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손경모 자유인문학회 회장

 자유기업원

나와 우리는 '주체적으로' 자유를 선택한다

2020. 9. 22.

모기룡

(인지과학 박사, 연세대 인지과학연구소)

『내가 선택하는 자유』 저자

1

들어가며 :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관한 흔한 프레임

[데스크칼럼]<포스트 코로나, 다른 세상을 상상하라> (현장언론 민플러스 2020. 5. 4)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한복판에서 시체가 썩는 장의트럭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만 쫓아가면 다 잘 될 것이라는 맨탈에 붕괴가 오고 있다. 공공 의료체계가 그래도 잘 서 있다는 서유럽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역시 또 하나의 충격이다. 서구문명, 인류 현대사를 끌고 온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문명은 인류를 습격한 바이러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중략)

지금 한국민중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로부터 공동체 윤리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표출된 품격 높은 시민의식은 코로나 재난 극복과정에서도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우리 민중의 위대한 도덕성과 잠재력을 낱아 빠진 서구 자유주의의 잣대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힘이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거대한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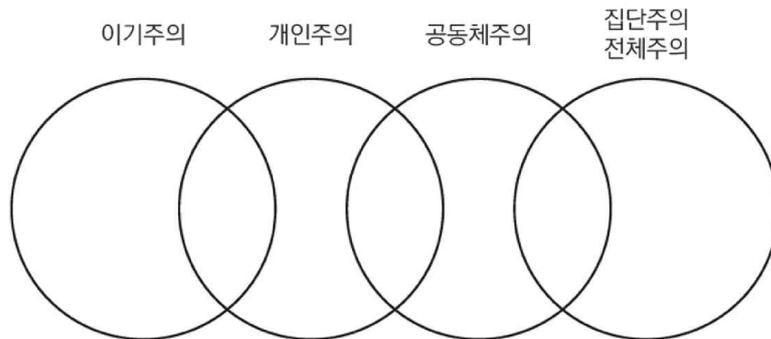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쓰게 된 동기

- 서양, 자유주의, 개인주의(이기주의) vs 동양, 공동체주의
- 이것이 옳은 관념인가?
- 동양인, 한국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으면서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얼마든지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음. 즉 서양화가 아님.
-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유의 위기 상황
- 철학적 분석과 현대적 과학으로 자유의 필요성 설명(유물론, 이성중심·이성만능의 과거 철학, 잘못된 과학에 대한 비판)

3

개인주의에 대한 진실 (책 1장)

- 개인주의란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합쳐지는 부분이 있음.



4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합쳐지는 모습들

- 바람직한 공동체주의의 예 : 이타주의, 자선활동, 애국심, 가족을 위한 헌신, 복지제도, 공공질서 등
- 인간은 사회적 동물 :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사회, 공동체가 필요.
- 동양의 상생(相生) : '호혜성'의 상승작용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도 공동체가 발전
-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이 말한 물질적 비용과 감정적 이득 : 자식에게 젖을 주는 어미의 예, '이타적 충동'.

5

개인주의가 사회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원인

- '서양 철학적 개념'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타자와 연결이 없는 원자적 개념(독립적)
- 공동체에서 분리된 원자적 개인은 관념상의 '허구'
- 자연적, 현실적 개인은 서양의 원자적(논·리수학적) 시각으로 보면 안됨.
-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함축하는(필요한) 개인주의는 '자연적, 현실적 개인'이지 허구적인 원자적 개인이 아님. 언어논리로 '개인'을 재단해선 안됨.

6

자유 의미 (책 2장)

- 자유는 통제력(control)인가?
- 주체의 통제력이 늘어날 때 그의 자유가 늘어난다는 생각.(서양에서 흔한 생각)
- 자유는 객관적(3인칭적)으로 보면 통제력이 아니라 예측불가능한 성질.
- 서양의 통제력에 대한 욕구, 반면 동양은 통제력에 대한 욕구가 적고 예측 불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서양은 예측불가능성을 매우 꺼림.
- ‘자유’를 서양에서 많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의미였을까?

7

동양철학의 자유와 개인주의

- 서양에서는 ‘자유 추구’와 ‘통제력 추구’가 흔히 합쳐지고 혼동 : 이러한 사고로 인해 자유를 추구하는 노정에서 종종 통제력을 최대로 함 (대표적으로 헤겔, 마르크스, 나치). 자유는 사실상 ‘명목’.
- 반면에 동양은 자연에 대한 통제보다는 ‘조화’(상생적 개념)를 중시.
- 도가사상(노자, 양주, 장자)의 자유와 개인주의
- 불교는 개인주의 종교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유심조’
- 궁극적 목적인 ‘해탈’은 법칙적, 결정론적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유.

8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공산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애매한 개념.
(복지주의와도 종종 혼동)
- 좌파에서는 흔히 소련, 북한 등 실패 사례를 두고 “그것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변명. 진정한 사회주의란 무엇일까?
- 나는 진보좌파 전부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찍어서 비판하려는 것.
: 좌파(진보)는 N극과 S극처럼 상대적개념, 사라질 수 없음. 반면 사회주의는 사라질 수 있음.

9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책 5장)

- 리처드 도킨스의 밈(meme) 이론에 적용(《이기적 유전자》참조)
- 사상, 종교, 제조법, 음악 등 정신적·정보적 단위가 이기적 유전자처럼 복제하려는 지향성을 지닌다. (밈의 플림과 증독성은 합리성과 무관할 수 있음)
- 공산주의, 주체사상, 어떤 민주사회주의처럼 다양한 현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와 ‘일치’하지 않음 : ‘허수아비 때리기’를 범함.
- 현실 사회주의 저변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사회주의의 실체란?

10

사회주의(그 밈)의 세가지 특징

- ‘사회주의’ 즉 내가 비판하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는 사상(밈)
1. 통제의 증가와 집중
 2. 민중의 유토피아를 가정
 3. 수단의 자유로움과 정당화

11

사회주의 밈을 퍼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

- 3번 모든 수단의 사용가능(수단의 자유로움과 정당화)
 - 인간중심주의(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
 - 도덕성과 관련 깊다는 믿음
 - 다수의 편이라는 믿음
- 사회주의는 어떠한 현실 사회주의도 사회주의이면서 사회주의가 아님.
: “이론은 좋은데 현실 독재자나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옴.

12

사회주의 mim의 본질적 목적/의도

- mim 관점(차원)으로 보면 무조건 더 많이 복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이 목적
- 인간의 관점에서 목적은?: 사회주의는 도덕, 공공선, 진보좌파를 위해 대체불가능한(필수적인) 것이 아님. (책 7장)
- 사회주의가 흔히 유물론(경제적 계급 문제)을 주장하는 이유 : 권력을 논의에서 감추기에 좋음 (책 6장)
- 사회주의의 1번은 언제나 현실에서 구현되지만 2번은 기약이 없음. 즉 사회주의의 본질적 의도는 지도층의 권력, 통제력, 지위 강화. 사회주의의 겉보기 내용은 '명목'(겉의 구실)이다. (최선의 설명에로의 추론)

13

사회주의는 서양적이고 도덕과 무관하다

- 인공적 mim,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통제력 추구와 이성만능주의.
-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집중하는 유물론.
- 인간 이성을 중시하면서 종교를 부정(반면 동양철학은 종교적 성향).
- 마르크스주의는 이성중심의 헤겔사상을 계승하면서 나타난 서양 사상임.
- 자유주의는 폭력의 감소와 '자율성 존중'의 공리주의를 뒷받침함. (책 11장)
- 반면 사회주의는 특정 부류(자본가)를 억압/제거하고 다수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도층이 막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 도덕은 끌림을 위한 수단.(3번 특징)

14

개인의 능력이 사라지는 사회 (책 8장)

- 사회주의에서 경제가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 인간 통제력의 한계, 인센티브 부재의 문제를 주로 언급.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비판.
- 유물론적 세계관이 아닌,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능력, 즉 '인적 자원'으로 경제발전이 잘 설명됨.
- 사회주의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소수 통제자가 성과를 판단. 반면 자유시장 경제는 소비자가 직접 판단. 소비자의 판단에 맞는 능력을 개발함. 반면 사회주의는 통제자의 판단에 맞는 능력 개발.
- 사회주의는 경쟁을 없애고 독점을 바람. 하지만 경쟁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오히려 공정함.

15

과학의 인지혁명 (책 9장)

- 19~20세기 중반 유물론 시대
- 물질이 객관적이라는 인식, 유물론과 행동주의
- 의식, 감성, (개인의) 능력, 권력, 권위, 지위 등의 사회적 성취는 물리적으로 인과적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20세기 후반 인지혁명
- 언어능력의 발견, 인지심리학, 감성과 직관의 힘, 컴퓨터의 발달
- 과거는 유물론과 이성만능의 시대였다면, 현대는 정보와 감성의 중요성이 부각됨.
- 유물론적 세계관이 깨지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융합하는 '인지과학'이 탄생.

16

대안과 비전 (책 제3부)

- 미소(자유-공산)냉전시대 이후 문화와 문명 충돌의 시대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 우리의 정체성은 동양에 속함. 현재 미중 갈등과 충돌에서 우리의 선택은?

-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을 필요성
 - : 좌파의 민족주의, 정체성 찾기는 사회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쓰임.
 - 더구나 친중과 주체성(자주)은 사실 모순됨. (책 10장)
 - : 동양 사상, 한국의 사상에서 장점을 찾고 서구 사상에서 장점을 찾은 주체적 사상과 지혜를 (합리성을 가진 것) 스스로 찾고 선택할 필요가 있음.

17

서양에서 발달한 불의 지혜 (책 12장)

- 인간과 자신에 대한 신뢰 (대표적 철학자로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헤겔)

- 인간중심주의와 1인칭 관점(주관주의)은 자신감을 키우고, 타인의 말과 소문을 믿지 않으므로써 의심하고 명증한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 한편 영국과 미국은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는 경험론을 도입, 실용주의, 현실주의. 특히 미국은 종교까지 결합하여 불의 지혜의 분류(유럽)와는 약간 다른 성향.(그것이 결국 복이 됨)

- 인간(이성)만능주의와 유물론은 20세기 초반의 참사로 이어짐(사회주의도).

18

동양에서 발달한 물의 지혜 (책 13장)

-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므로 겸손함, 유연하고, 충돌하지 않고, 결과적 이득을 줌.
-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완전히 알 수 없음. 무(無)의 중요성(유무상생)
- 무위자연(無爲自然) : 인위성을 줄이고(통제를 줄이고) 자연에 따르고 조화.
- 유교에서도 법칙은 인의예지와 같은 것으로 최소화하고 천명을 따르고 수양과 참선, 호연지기를 강조.

19

서양 휴머니즘의 대안, 홍익인간(책 13장)

- 서양 휴머니즘의 장점은 논리적이고 증거주의로 인해 과학을 발전시킴, 그리고 자신감.
- 단점은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에는 '인간을 위함'이라는 뜻과 함께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담고 있음. 그러한 오만함이 문제를 일으킴. (과학적, 도덕적 오류)
- 지동설, 진화론, 양자역학 등으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이 증명.
- 인간중심주의는 신의 위치를 인간으로 대체하는 것.
- 인간중심주의는 과학적이 아니므로 오히려 과정에서 방해가 되고 결과적 이득에 도움 안됨. 인간의 결과적 이익은 '홍익인간'사상에 담겨있음.
- 인간중심주의는 '중심축'을 가정하게 되므로,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를 뒷받침.

20

동서양 지혜의 결합 (책 13장)

- 서양의 인간중심주의는 필요 없지만, 1인칭 관점의 주관주의는 필요함.
: 인식론에서 증거론과 내재론의 장점, 자신감, 주체성, 자존감.
- 물의 지혜의 장점은 '자신의 관점을 초월하고 밖을 향하고, 받아들이는 것'
: 자아의 닫힌 사고에서 벗어남, 유연함과 창의성, 타자와 소통 원활, 충돌이 적음.
- 자신에 대한 신뢰와 불신, 자신의 관점에 주목함과 벗어남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때와 과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나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두 지혜가 모두 필요함.

21

마치며

- 사회주의는 과거 냉전시기에 공산권과 운동권 그룹에 '가둬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치권, 시민사회에 널리 퍼지고 스며들어 있음(명칭은 중요하지 않음)
- 진보좌파는 사회주의(3가지를 가지는 것)을 버려야 할 것. 아마 스스로 못 버리고 타력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 그 명분이 허상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
- 보수우파는 우리의 주체성과 정체성(민족, 동양), 공동체주의를 긍정하고 활용해야 한다.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그것과 모순된다는 것은 오해(본 책이 설명하고 알리려는 것). 보수우파가 얻고 싶어하는 '중도'는 거기에 있을 것.

22

『내가 선택하는 자유』



신 중 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의 자유주의 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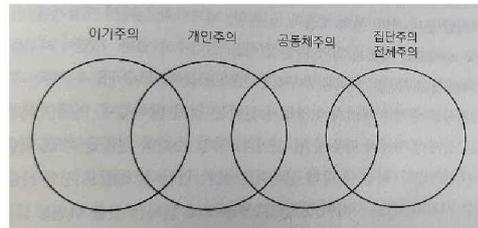
제1세대 : 냉전 자유주의 = 반공

제2세대 : 경제적 자유주의

제3세대 : 문화적 자유주의 또는 인문적 자유주의

진보좌파 : 보수우파

자유와 자유주의는 구분 해야함
 마르크스도 자유를 중시하고 아담 스미스도 자유를 중시함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는 서양 근대의 산물



23쪽

이기주의 : 이타주의 / 이기적 개인주의 : 이타적 개인주의
 개인주의 : 집단주의 / 이기적 집단주의 : 이타적 집단주의

자유주의 : 전체주의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공화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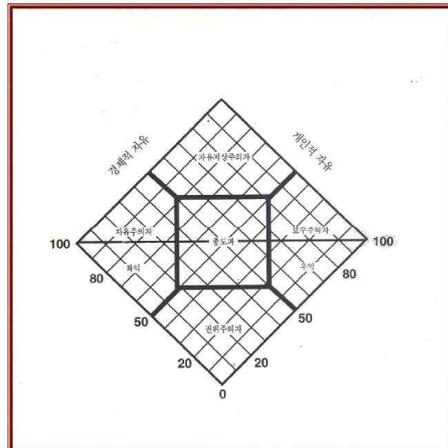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개인의 이기주의(경제)보다 권력자와 권력자의 집단 이기주의(정치)가 문제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 즉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와 사고 방식이다. 공동체주의에서 그 부분은 복지 제도, 자선활동, 애국심, 가족을 위한 헌신, 공공질서 등 많은 긍정적인 것이 있다. (23쪽)



정치적 자유주의자는 대중주의와 포퓰리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실과 이론

철학 : 현실을 바꾸려고 함
정치 : 현실에 적응하려고 함

이론 : 이성의 우위 (사회주의적 이상)
현실 : 감성의 우위 (사회주의적 마인드)

이론과 현실의 비대칭

- 우파가 민족과 주체성, 우리 문화의 개념을 완전히 포기해도 될까? (72쪽)
- 우파가 평등, 공동체, 공공선, 자선, 공정, 정의, 민주주의, 복지, 환경 등을 좌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가?

사회주의의 세 가지 특징

1. 통제의 증가와 집중
2. 민중의 유토피아를 가정
3. 수단의 자유로움과 정당화

<내가 선택하는 자유> 토론문

손경모 자유인문학회 회장

1.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

사실 공동체주의와 대립하는(모순되는) 것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와 대립하는 것은 집단주의, 전체주의임.

=> 이것은 이렇게 딱딱 나누어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라는 말이 있듯, 이것을 개인(이기주의, 개인주의), 집단(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있는데, 개인이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공동체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공동체 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이기주의와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그것과 반대되는 반작용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이라는 방향은 일치하나 주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의 문제고, 이기주의와 집단주의, 전체주의는 공공선이라는 방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노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 서양은 이미 고대에 형상이 질료보다 존엄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것은 형상과 질료에 관한 차이로 동양은 사고구조가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질료를 먼저 생각하고, 서양은 구조를 먼저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무 원기둥을 바라볼 때 동양인은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먼저 떠올리고, 서양인은 그것이 원기둥임을 먼저 떠올린 다는 것이다.

동양은 질료(면)를 먼저 생각하고, 서양은 형상(선)을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어온 것. 서양은 형상이 중요하기에 같은 형상을 보는 2차원의 개인들이 각자 열심히 살면 면이 채워진다고 보는 것.

동양은 2차원의 선이 모두 다르기에 3차원을 보는 '초인'이 있어야 그가 선을 보고 나머지가 면을 채운다고 생각.

3. 개인주의가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단어가 된 원인

개인주의가 사회적인 개념이 못 된 것은 전적으로 번역의 문제가 크다. 사람들은 개념을 통해 단어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인식한 것이 보다 구체화되기 때문에 단어의 개념이 중요하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신 앞에 선 단독자란 뜻으로, 個人主義(개인주의), 낱 개자를 써서 전체와 분리된 하나라는 말을 쓸게 아니라, 開人主義(개인주의), 열 개자를 써서 전체와 연결된 의미로 말을 썼어야 했다. individual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모른 채 받아들였기에 잘못된 개념화가 된 것. 유일신 앞에 단독자, 사회와 연결된 단독자. 이때 단독자는 사회에서 홀로 떨어져있는 개념이 아니라, 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뜻. 가장 양심적이고 존엄한 존재.

4. 사회주의는 희생제라는 일종의 원시 본능임.

사회주의라는건, 인간의 사회를 처음 만들던 원시본능으로 볼 수 있음. 인간이 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오랫동안 해온 것. 인간이 쉽게 사냥할 수 없는 것이나 힘을 모으기 위해 해온 것으로, 이때 이런 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는 항상 그 사회의 약자가 됨.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이를 제물삼기도 하고.. 동물의 세계로 따져보면 우두머리 자리를 두고 다투는 두 경쟁자 가운데 한 마리가 이기면 다른 한 마리를 뭉개는 것과 같음. 조조가 전쟁 중에 군량이 부족하게 되자, 군량을 충분히 채울 수 없으니 군량 담당관(왕후)이 군량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고 목을 쳐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운 것도 이런 희생제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런 힘이 유지되는 사회, 언제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를 안정적이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그런 안정감을 위해 제물을 받칠 준비가 돼 있음. 이런 것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원인이 됨.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복종 속에서 희열을 느낌. 또 아무리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더라도 누군가 희생되는 것을 보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스트레스를 줄여줌.

민중들이 사회주의에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냥하면서 사회가 더 큰 힘을 휘두른다는 것에 반응하는 것. 사람들은 큰 힘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임. 이 힘을 분산시키고 억제하면 불안함을 느끼고 자유로운 상태를 벗어나고자 함.

5. 사회공학자들이 만드는 사회엔진 vs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사회엔진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는 것은, 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만이 사회주의인데, 제물을 쓰고 힘이 빠진 사회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 다시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것. 사회과학은 사회를 돌리는 엔진을 설계하는 것으로, 그 연료를 인간으로 씬. 자유주의는 그 엔진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쓰자는 것. 그래서 인간이 연료로 들어가지 않고 거래를 통한 생산력의 향상이 그 엔진 연료가 됨. 그래서 아무도 희생되지 않고 사회의 힘이 유지되고 커지는 것.

사회주의가 유물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를 돌리는 엔진이 부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만드는 엔진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돌리고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엔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경영하는 것이고, 사회주의자는 보이는 것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하는 것의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포함한 경제의 조화를 피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자는 오직 설계한 사회 안에서 조화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 눈에 보이는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영하려하니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발전을 하면 되는데, 물을 직접 전기로 바꾸는 생각을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것.

6. 사회주의 경제가 망가지는 원인.

사회주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시장의 결론을 시장참여자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사회공학자들이 시장의 결론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은 제대로 된 신호를 낼 수 없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인이 끊어지는 것. 시장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정치적 최고 결정자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릴 경우 재앙이 옴. 반대로 자유주의에서 경제는 그렇게 망가지질 수 없는데 시장의 결정을 시장참여자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임.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모두 시장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음. 시장참여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떠나느냐 둘 밖에 없기에 시장은 계속 상호소통을 하며 변화함.

7. 동서양의 지혜.. 음양의 1:1대응 관계보다, 빛과 어둠의 $n:\infty$ 으로

동서양의 지혜는 물/불의 지혜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음. 서양정치철학은 형상이 질료보다 존엄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었기에 빛을 어둠보다 존엄하게 놓고 구조적 관점, 논리적 관점, 이성적 관점이 우선시 되었다. 반대로 동양의 경우는 형상과 질료간의 무엇이 존엄한지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질료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래서 논리나 구조보다 상황, 환경, 배경, 관계가 더 중요시 된다. 그래서 어둠, 즉 보이지 않는 것들,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상황에 따라 중요한지 평가된다. 코로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서양은 코로나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판단하려고 하고, 동양은 코로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코로나가 무엇인지 중요하기에 마스크를 쓰지 말지에 관해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코로나가 무엇인지 알기보다 어떻게 사회 안정을 시키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8.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오해?

휴머니즘이나 인간중심주의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함.

휴머니즘은 사회설계주의로 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음. ~ism은 무

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휴머니즘은 사회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사회를 재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고대 정치철학에서 중요시했던 인간중심주의가 후퇴하고 근대 정치철학에서 이성주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기는 것.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이 중심일 수밖에 없음. 많은 문제가 인간이 중심인 문제에서 인간을 중심부 밖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다 아니라는 사회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님. 태양이 아무리 지구를 돌더라도 인간은 세상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인간이 과학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그림같은 언어를 쓰는 이유는 사회 속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언어를 통한 지식을 교환할 때도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님. 지동설은 이미 고대인들도 이해하고 있던 개념임.

인간이 인지하는 세계를 인간 속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보는 재가공됨. 소통하기 편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런 언어 소통과정에서 인간은 사회라는 제2의 세계를 만듦. 인간은 자연계 속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사회라는 제2의 자연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임. 이때 인간이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나게 되면 자연에서도 밀려나게 되는 것. 왜냐하면 인지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설계하려는 것에 있음. 그래서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재단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실험실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됨.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않음. 홍익인간이 말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와 칸트의 ‘인간을 오직 목적으로만 대하라’와 휴머니즘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음. 오히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학적이나 이성적인 방법론이 잘못 된 것.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는 인간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결코 아님. 만약 인간을 중심축으로 놓고 나머지를 타자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인간 이외의 존재를 적대시해야 하지만,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는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였음. 즉 어떤 집단이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제물로 삼는 것이

기에 그것은 오히려 반인간주의, 반휴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음.

인간중심주의와 홍익인간 사상은 동서양의 관점차이를 부각시킬 뿐, 그다지 차별성을 느낄 수 없음.

9. 서양에서 주체성이 강조되는 이유

서양에서 개인들에게 자기 생각을 계속 표현하게하고,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형상이 질료보다 존엄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언어는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다보면 시장참여자들이 각 시장에 대해 유사한 정보를 갖게 되듯, 각 개인이 유사한 생각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임. 그것은 시장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듯,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교환을 통해 만든 언어적 결과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앞서 말했듯 반대로 동양의 경우는 선보다 면을 먼저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면을 같은 방식으로 색칠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그러다보니 교환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의사소통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임. 그래서 선(line)이라는 지식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머지는 면을 채우는데 사용해온 것. 결국 지식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 동양은 어릴 때부터 자기 개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환하며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놓은 선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며 살아왔기 때문임. 그래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복종하고 선동에 취약하게 됨.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나 명령에 따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임.

물의 지혜에서 말하는 자기 관점의 초월은 범부나 소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그래서 소수가 선을 세우고 나머지 다수가 면을 칠하는 것. 결국 동양적 자유는 사회 분업을 인정하고 지배-피지배 계급간의 지배와 복종 사이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사고의 틀이 동양과 서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 자유주의가 전파되기 더 어렵다. 결국 서양이 고대에서부터 형상이 질료보다 존엄하다는 것을 확립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눈뜰 수

있게 된 것. 그에 반해 우리는 이기론에서도 이기호발설이 지속되다가 조선 후기 율곡 이이에 의해 이통기국론이 논의되면서 그제서야 형상이 질료보다 더 존엄하다는 것이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의 근본적인 개념은 개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양에서 나온 개념들을 생각의 구조가 다른 동양적인 언어로 잘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